

INEB 서울대회 내년 7월20~25일 개최

고사난다 스님등 100여명 참석

환경·평화·여성·난민·인권 등 토의

참여불교도국제연대의회(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INEB) 서울대회가 내년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서울대회는 또 캄보디아의 고승 마하 고사난다 스님과 태국 인권운동가인 술락 박사,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10개국 100여명 이상이 참석, 불자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법륜스님(경기도 지도법사, 민청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국제협력국장, 이기향 우리는 선우 국제협력국장, 엔라파판 수파만타 INEB 사무국장 등은 24일 태국 방콕에서 모임을 갖고,

회의 시기와 진행방법, 초청인사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는 불교 내부 문제와 불교 사회 참여 두 가지의 큰 주제 아래 △환경(소비주의) △평화(네팔, 네팔 카시미르 등 아시아 분쟁지역) △여성(비구니 성매매 여성차별) △난민(북한, 버마, 아프가니스탄) △인권(군사독재 및 이주노동자 문제) 등의 소주제로 참석자들 분과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또 24일 한국사찰방문, 25일 불교계 NGO 사무실 방문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법륜스님은 "불교계 NGO 단체들과 협의 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작성할 것"이라며 "한국 참여불교 단체의 국제적 홍보와 역량 강화, 지지부진한 일본 INEB 단체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INEB는 89년 2월 태국에서 술락 박사와 일본의 테무오 마루야마 등의 주도로 11개국 26개 단체의 출제 불자들이 모여 시작되었다. 현재 33개국 4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불교의 비전개발, 불교도간 또는 종교인들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 불교 또는 사회단체들의 정보제공, 워크숍 및 훈련 진행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대안교육 비폭력운동 인권 환경 여성 대안적 사회발전 및 인간 심성과 행동 증진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방콕=남동우 기자

"비구니스님 차별문제 대처방안 강구할 터"

엔 INEB 사무국장



참여불교도 국제연대의회(INEB) 엔라파판 수파만타 사무국장(사진)은 "비구니스님 차별 문제에 대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방계열의 국가에서는 비구니스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구니스님이 대안에서 교육을 받고 고국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구니스님 차별 문제에 대해 비구니승단 자체의 수행력 강화와 국제연대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엔 사무국장은 "비구니 차별 문제 또한 고등반은 소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벌거숭이 산신 살수없어 간다오

수녀들, 금정·천성산 파괴 고속철반대 거리 음악회

"산에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벌거벗은 산에 살수 없어 간다오"

21일 부산시청앞을 오가던 행인들은 수녀 40여명이 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등의 악기 연주와 함께 들려주는 동요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동안 이어진 작은 음악회는 예수성심정교수수녀회 소속 수녀들이 경부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동반대를 위해 마련한 길거리 음악회를 열어 시민홍보에 나

설 계획이다.

23일에는 건교부, 고속철공단, 시민종교대책위 실무자들이 만나 한동 안 결성되었던 민간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노선 검토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원칙으로 하고 민간협의체 조사를 통해 결론이 나오기전에는 어떠한 공사나 발주도 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로 3회 째, 이번 행사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신자들이 힘을 모으으로써 종교연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종교연합 바자회 먹거리장은 화계사에서 곡수 전 호박죽 식혜 등 전통음식을, 수유1동 성당과 송암교회에서 어묵 김밥 커피 떡볶이 등을 준비했다.

화계사 교무 해법스님은 "올해 종교 연합바자회에는 5천만 원 정도의 성금이 모였다"며 "강북구청과 협력해 20여 명의 난치병 어린이를 돕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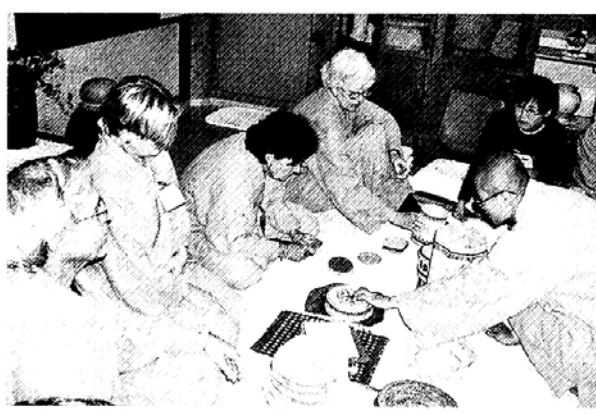
불교등 3개종교 사랑의 연합바자회

한신대 운동장서...난치병 어린이돕기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 신자들이 종교의 장벽을 넘어 난치병 어린이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화계사, 수유1동 성당, 송암교회는 19일 한신대 운동장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종교연합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다. 99년 8월 성공스님과 이종남 신부, 박승호 목사가 만나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연합바자회를 열자는 의견을 모아 개최된 이래



"템플스테이, 최고의 경험" 조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 부인(왼쪽에서 세번째)이 미국인 지인 4명과 함께 19~20일 정도 문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허버드 여사의 템플스테이 체험은 지난 2월 대동사 일지암에서의 체험에 이어 두 번째. 조석 예물, 사리암 순례, 참선, 선재초, 다도 등을 체험한 허버드 여사와 일행은 가장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문물사 대동 250여명이 참석한 새벽예불을 꼽으며 "Best experience!"라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보화사회 적응못하면 승가공동체 와해될수도"

유승무교수, 불교사회문화원 포럼서

정보사회로 발전할수록 가상공간을 통해 성(性)과 속(俗)의 구분이 사라지고, 불교가 정보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승가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유승무 교수는 24일 현대불교사회문화교육원이 "정보사회와 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승무 교수는 "연기법과 엄 등 불교사상은 정보사회의 윤리적 가치가 될 수 있고 지혜의 개념도 정보사회의 가치창출의 기반이 되는 정보나 지식의 확대된 모습이어서 불교는 정보사회에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며 "중도와 공존의 가르침인 불교사상의 영향력은 정보사회에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 교수는 "인간관계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익명성이 존중되는 정보사회의 특성은

"정보화사회 적응못하면 승가공동체 와해될수도"

유승무교수, 불교사회문화원 포럼서

가상공간에서 출가자가 세속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승가공동체 내부에서도 정보 사유화 현상이 발생하며 새로운 불교지식인 계급이 출현, 불교공동체의 기

존 권위체계 및 지배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강사 박수호씨는 "최근 가상공간에서 불교를 접하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불교를 접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네티즌들의 불교적 관심과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새로운 불교지식인 계급이 이미 출현하고 있다"며 "이처럼 성숙의 구분이 없어진다면 스님들은 더 이상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지고 출가자도 줄어드는 등 승가의 총체적 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스님들의 경각심과 정보사회를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두식 기자

정기 어린이법회 운영사찰 62%

참석인원 1만2천, 지도자 1,092명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대불여가 529개 회원 및 연수참여 사찰을 대상으로 전국 어린이 법회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법회(불교학교 포함)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329개소로 62%에 불과했다. 또한 정기법회 참가 어린이는 총 1만1천927명으로 평균 39명 수준이며, 지도자는 전국적

으로 총 1,09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법회를 여는 사찰 가운데 225개 사찰(68%)은 일요일에 법회를 열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79개 사찰(32%)이 법회를 보고 있다. 불교학교의 경우 225개 사찰(94%)이 여름 불교학교를 개설하고 있는 반면, 겨울은 144개 사찰(47%)만이 여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두식 기자

고려시대 불상2점 기증

정재철씨 동대 박물관에

유암문화재단 정재철 명예이사가 21일 동국대 박물관에 '석조나한상(사진 왼쪽)'과 '목조관음보살좌상(사진 오른쪽)' 등 고려시대 불상 2점을 기증했다.

정 이사장은 송석구 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내故 전금주씨가 생전에 모시던 불상을 고인의 뜻에 따라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며 "불상의 학술적 가치를 분석한 뒤 많은 후배들이 경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석구 총장은 "본교 박물관에 불상을 기증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유암문화재단 정재철 명예이사가 21일 동국대 박물관에 '석조나한상(사진 왼쪽)'과 '목조관음보살좌상(사진 오른쪽)' 등 고려시대 불상 2점을 기증했다.

정 이사장은 송석구 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내故 전금주씨가 생전에 모시던 불상을 고인의 뜻에 따라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며 "불상의 학술적 가치를 분석한 뒤 많은 후배들이 경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석구 총장은 "본교 박물관에 불상을 기증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고침 본지 392호 6면 일주문 중 해동 이천사암원 회상사장이 바래왔습니다.

목탁소리 권리가 의무보다 앞서서야

한 명우 (취재1부 차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19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기회비 체납 종단에 대해 이달말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 또는 징계하기로 결의했다.

종단협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종단을 포함한 6개 종단이 길게는 98년, 짧게는 지난해부터 월 40만 원 가량의 회비를 체납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종단협이 회비체납 종단에 대해 제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 이들 6개 종단의 공통점은 회비체납은 물론 그동안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단협이 명실상부한 협의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참여의사가 없는 종단을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종단협의 기본 인식이다.

종단협의 한 관계자는 "회비야

형편상 체납할 수도 있지만 몇 년째 회의조차 참석하지 않는 것은 종단협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회비가 문제가 아니라 참여의지가 있는냐가 중요하고, 그 판단을 체납회비 납부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종단협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종단의 불멘소리로 들린다. 모 종단의 한 관계자는 "몇몇 종단이 자기들끼리 다 하면서 이제 와서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무보다 하고 나서 권리를 찾는 것이다. 불만이 있다면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노력도 없이 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더욱이 종단협이 불교발전을 위한 협의체임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6개 종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전문상담가 심화교육

후원 : 행정자치부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 및 가해자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합회에서는 가정폭력 남편의 의식개선을 위한 상담가 심화교육을 통하여 가해자의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대 상: 가정폭력관련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 병원내 상담관련 종사자

◆일 시: 2002년 10월31일 ~ 11월 1일, 2일, 3일 (4회 20시간=기본과정:5만원)
2002년 11월 4일 ~ 11월 6일, 7일, 11일, 12일 (5회 25시간=심화과정:7만원)

◆장 소: 연꽃 교육장 (인사동사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인 원: 30명(선착순) 2002년 11월 4일

◆수강료: 12만원 (우려은행 : 098-088769-01-501/한국여성불교연합회)

◆문의: 02-738-5586, 5568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1.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이해			
11월 1일 (금)	10:00 ~ 12:00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박애선 교수
	13:00 ~ 16:00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해	이종호 원장
11월 3일 (일)	10:00 ~ 12:00	가정폭력에 대한 핵심적 기법	채규만 교수
	14:00 ~ 16:00	가정폭력의 원인과 배경	김현수 원장
11월 7일 (목)	10:00 ~ 12:00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상담기법	김현수 원장
	13:00 ~ 16:00	부부갈등과 위도	이명진 교수
2. 가정 폭력의 가족 치료적 접근			
11월 6일 (수)	10:00 ~ 12:00	가족치료의 단기해결 중심적 접근	김유숙 교수
	13:00 ~ 14:00	해결 중심적 가족치료의 배경	김유숙 교수
	14:00 ~ 16:00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실제	안동현 교수
3.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의 실제 I			
11월 11일 (월)	10:00 ~ 12:00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채규만 교수
4.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의 실제 II			
11월 11일 (월)	13:00 ~ 16:00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	채규만 교수
5.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의 실제 III			
11월 12일 (화)	10:00 ~ 12:00	부부대와 프로그램	채규만 교수
	13:00 ~ 14:0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	김화자 소장
	14:00 ~ 16:00	건강한 가족제도	박혜인 교수

본 프로그램 이수(사)인증(심화)는 본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이외지 부본 12시간)을 면제받음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태극전사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37억 아시아의 축제, 또 한번 대한민국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선수들 곁에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있었습니다. (주)수신토종오가피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한국선수단의 체력증진을 위해 토종오가피 2000상자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토종오가피는 6월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를 오가피 태극전사들이 복용했다. <이탈보영 25페이지 보>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오가피를 심으시려면 서두르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수십년 수확이 가능한 토종오가피!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서두르십시오.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이번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꼭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을 확인하십시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인쇄되어 있는 이 사진이 없다면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토종오 대표 / 성 광 수 씨

자료무료신청 (02)2201-3333